

경제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오인철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11일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경제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



올림픽 시설 활용 81억·동서고속철 90억 포함 도 현안 493억 증액

국회 정부예산안 통과

강원도와 도 정치권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00여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담았다. 강원도의 주력 사업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국회는 10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이다. 법정 국회 예산안 처

남북교류사업 21억여원 반영 정책추진 등 탄력

정부예산은 1조2천억 삭감된 512조3천억 규모

리일(12월2일)이 지난지 8일만이다. 국회를 거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강원도 관련 사업이 대거 담겼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에만 49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삼척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5억원) 사업과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접속도로 건설(3억원) 등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강원도가 요구했던 예산 규모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지속적인 국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관련 예산도 신규 증액 목록에 올랐다. 매년 거절당했던 평창 평화테

마파크 조성(26억6,000만원), 동계 썰매중목 체험시설 설치(32억5,000만원), 신남방 슬라이딩 캠퍼인 육성 사업(5억원),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18억원)에 새롭게 국비가 배정됐다.

SOC사업 중에서는 단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눈에 띈다. 계속 사업이지만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10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90억원을 더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단기 방식)을 통한 조기 착

공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 밖에 원주 전 재해예방 사업(15억원), 국도 5호(춘천-화천, 신림-관부) 및 31호(방림-장평, 양구-원통), 59호(남면-정선) 신설 및 확보장 예산이 포함됐다. 또 DMZ화살마리교지 평화공원 조성사업(20억원)과 을지전망대 신축사업(1억1,6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강원도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강릉 회도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동해 북부선 등

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원 규모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